〔특집〕

초대 그리스도교 교육*

■
송 혜 경
[한님성서연구소 수석연구원]

1. 서론: 연구 목표와 방법
2. 구약성경
  2.1. 유다교: 가르침과 배움의 종교
  2.2. 모세: 교육자의 전형
  2.3. 모든 백성이 학생이자 교사
  2.4. 교육자: 사제들, 예언자들, 현인들, 서기관들
  2.5. 소결론: 구약성경의 '교육'
3. 신약성경
  3.1. 예수 그리스도
  3.2. 제자들 또는 사도들
  3.3. 교육자들
  3.4. 모든 그리스도인
  3.5. 그리스도교 교육의 목적
4. 신약 외경
  4.1. 토마 복음
  4.2. 사도들의 편지
  4.3. 외경 행전들
5. 결론

서론: 연구 목표와 방법

이 글은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교 교육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다. '신학대학 평신도 개방 50주년'을 맞이하여 교회 내 평신도 교육의 첫 모습은 어떠했는지 살펴본다는 취지에서다. 교회가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할 때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이 그 '시작'은 어떠했는지 돌아보는 일일 법하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교육의 시작을

* 이 글은 2023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작성된 논문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론과 관련하여 다음 네 가지를 미리 밝혀둔다.

첫째, '평신도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그리스도인 교육'이라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다. 사실 초대 교회, 특히 신약성경 시대를 논하면서 '평신도'라고 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언명에 가깝다. 샤를르 페로가 지적하듯, 신약성경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으며,[1] 교회 안에서 성직자와 평신도가 구분되기 시작한 것은 2세기 이후부터다.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들로 교회 안에 혼란이 야기되자 올바른 가르침을 식별하고 감독할 직무들을 고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이루어졌다고 한다.[2] 이와 함께 성직자 계급도 분화되어 오늘날과 비슷한 위계가 세워졌다는 것이다.[3] 그러므로 초세기 그리스도교 교육을 살피는 이 논문은, 성직자 평신도 구분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그리고 교육의 실상보다는 초대교회가 '교육'에 부여한 의미와 비중 등 원론적인 내용에 집중할 것이다.

둘째, '교육'을 논할 때 '가르침'과 '배움' 둘 다를 아우르는 개념

---

1) 샤를르 페로, 『예수 이후-초대 교회의 직무』, 백운철 옮김, 가톨릭출판사, 2002, 28쪽.

2) D. Burkett,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and the Origins of Christian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427. 히브리서에서 교회 지도자와 나머지 성도들을 구분했지만 이 지도자들도 크게는 성도 안에 포함되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였던 셈이다(히브 13,22~24). 이에 대해서는 샤를르 페로, 같은 책, 170쪽 참조.

3) 처음에 지역 교회 지도부는 여러 원로들(프레스뷔테로스) 또는 감독들(에피스코포스)로 구성되었다(필리 1,1; 『디다케』 15,1~2). 그러다가 점차 '한 명의 감독(=주교)과 원로단'이 함께 지역 교회를 맡아 다스리게 되었다(1티모 3; 4,14). "monarchic episcopate"라 불리는 이 시스템을 통해 교회는 효율적으로 '다른 관점'들을 관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안티오키아의 주교 이냐시우스의 편지는 2세기 초 안티오키아와 소아시아 교회가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증언한다. 2세기 교회는 '감독과 원로단' 외에 '봉사자들'(디아코노스)도 갖추고 있었다. 이 '감독, 원로들, 봉사자들'이 원-정통 교회의 전형적 직제로 자리매김한다. 이들은 나중에 각각 주교, 사제, 부제라 불리게 된다. 직무의 분화와 발전에 대해서는 Cf. D. Burkett, *Ibid*., pp.427~428. 437~439.

으로 접근할 것이다. 교육은 일방적 과정이 아니며,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사이의 상호 관계에 의한 동시적 사건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르침'과 '배움' 행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양 측면을 고려하면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초대 교회 '문헌'을 통한 연구로서 신약 성경과 외경을 주 자료로 사용한다. 50~200년 사이에 저술된 초대 교회 저작물들 가운데 교부 문헌을 제외한 나머지인 셈이다. 초대 교회 교육에 관한 연구서들은 대개 신약성경과 함께 사도교부 문헌을 자료로 채택하지만 여기서는 교부문헌 대신 신약 외경을 선택했다. 초대 교회사에서 신약 외경은 사도교부 문헌들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하는 편이었고 초대 교회 교육사를 다루는 글에서도 신약 외경이 인용된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신약 외경은 초세기 교회의 또 다른 측면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외경이 원-정통, 가톨릭교회의 정경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리스도교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신약 외경을 통해 초대 교회에서 '교육'의 비중이 얼마나 컸는지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육과 관련된 성경과 외경의 본문들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역점을 두고 본문에 대한 역사비평적 분석은 하지 않는다. 중요한 본문은 되도록 '직접 인용'할 것이다.

이제 초대 그리스도교 교육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볼 차례다. 논의는, 구약성경, 신약성경, 신약 외경 순으로 진행하되 신약성경에 중점을 둘 것이다. 구약성경은 그리스도교 교육의 기원을 살핀다는 의미에서, 신약 외경은 신약성경 내용을 보충·확증한다는 의미에서 핵심만 짚을 것이다.

2. 구약성경

그리스도교 교육의 뿌리는 고대 유다교, 구약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교육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다인들에게서 물려받은 귀중한 유

산들 가운데 하나다. 실제로 20세기 그리스도교 교육의 개척자로 평가받는 이비(C.B. Eavey)는 그리스도교 교육의 뿌리를 유다인들의 종교교육에서 찾는다.[4] 그 뿌리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교 교육을 제대로 논하기 어렵다.[5] 따라서 구약성경에서 '교육'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부터 먼저 살필 것이다. 유다인들의 교육에 관한 학자들의 설명을 따라가면서 교육과 관련된 구약 본문들을 간략히 살펴보겠다.[6]

2.1. 유다교: 가르침과 배움의 종교

헤이즈(B. Hayes)는, 종교 교육은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역설한다.[7] 하느님이 첫 스승, 첫 교사시라는 것이다. 유다교는 '가르침'과 '배움'의 종교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하느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실제로 구약성경은 하느님을 이스라엘 백성의 첫 스승으로 제시한다.[8] 구약성경에 따르면 하느님은 역사와 가르침(토라)을 통해 당신을 계시하셨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이 누구신지(탈출 3,12), 그리고 백성이 따라야 할 길은 무엇인지 가르쳐주시고 모세는 그 가르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면서 각자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명하였다. 곧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계시하시고 그것을 백

4) C.B. Eavey,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Chicago: Moody Publishers, 1964.

5) 세이즈(J.O. Sayes)도 그리스도교 교육이 유다인들의 교육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J.O. Sayes, *Renewal in Theological Education: Strategies for Change*, Wheaton: The Billy Graham Center, 1978, p.35.

6) Cf. C.B. Eavey, *op.cit*., pp.43~74; R.W. Pazmiño, *Foundational Issues in Christian Education: An Introduction in Evangelical Perspective*,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8, pp.20~33. 두 저자는 교육과 관련한 구약 본문들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인용한 구약 본문들은 대부분 이비와 파쯔미뇨의 책에서 힌트를 얻어 선택된 것들이다. Cf. M.J. Anthony, W.S. Benson, *Exploring the History and Philosophy of Christian Education: Principles for the 21st Century*, Wipf and Stock Publishers, 2011, pp.17~42.

7) B. Hayes, *Training God's Army: The American Bible School*,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1991, pp.32. 42.

8) C.B. Eavey, *op.cit*., p.50.

성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면 모세는 자신이 배운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백성은 그것을 다시 자녀들에게 전수한다. 하느님으로부터 시작된 가르침이 교육을 통해 모세를 거쳐 모든 백성에게 전달되고 이어서 세세대대로 전수되는 것이다. 하느님 → 모세 → 백성 → 자자손손 순으로 전해지는 가르침의 '사슬'은 신명기에 잘 요약되어 있다. 다음은 이집트를 탈출한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다.

> "이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게 될 땅에서 실천하도록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규정들과 법규들이다. […]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 두어라. 너희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거듭 들려주고 일러 주어라"(신명 6,1~9).

이 구절은 가르침의 백성답게 모세를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야함을 역설한다. 이에 대해 조금 자세히 살펴보자.

2.2. 모세: 교육자의 전형

구약성경은 모세가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백성을 가르칠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묘사한다(탈출 18,20; 24,12; 신명 4,14; 31,19).[9] 모세는 먼저 하느님으로부터 당신이 누구신지 배운다(탈출 3.14). 그 다음 하느님한테서 듣고 배운 모든 것을 백성에게 전달하는데 이는 하느님 뜻에 따른 일이라고 한다(신명 4,5).[10] 주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가르치라고 직접 명하셨다는 것이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실천해야 할 규정과 법규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다"(신명 4,14).

하느님은 모세에게, 모세는 다시 백성에게 '가르침'을 전달하는

9) C.B. Eavey, *op.cit*., p.50.

10) "보아라,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땅에서 그대로 실천하도록, 나는 주 나의 하느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규정과 법규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다."

‘가르침의 사슬’에는 모세가 하느님의 대리인임이 암시되어 있다. 다음은 백성을 가르칠 법규가 새겨진 돌판을 주시면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내가 있는 이 산으로 올라와 거기 머물러라.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탈출 24,12). 여기서 하느님께서 백성을 가르치시기 위해 모세를 대리인으로 세우셨음이 드러난다. 이는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있었던 일화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일러주시며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라고 하신다.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적은 다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 그날 모세는 이 노래를 적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다”(신명 31,19~22).[11] 결국 모세는 하느님께서 알려 주신 것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사람, 하느님의 대리교육자다. 백성을 가르치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느님이시라는 것이다. 이 원칙은 향후 모든 교육에 적용된다. 교육의 내용도, 교육의 주체도 하느님이시라는 뜻이다.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대리 교육자가 된다.

2.3. 모든 백성이 학생이자 교사

구약성경에서 배움과 가르침의 임무는 모세와 같은 백성의 지도자뿐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부여된다. 모세를 통해 하느님에게서 얻은 가르침을 백성 모두 자자손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12]

> “너희는 오로지 조심하고 단단히 정신을 차려, 너희가 두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것들이 평생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또한 자자손손에게 그것들을 알려 주어라. 너희가 호렙에서 주 너희 하느님 앞에 서 있던 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을 나

11) 모세가 백성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것은 그의 장인이 한 조언에서도 드러난다. “자네는 하느님 앞에서 백성을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일을 하느님께 가져가게나. 그리고 그들에게 규정들과 지시들을 밝혀 주고, 그들이 걸어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게”(탈출 18.19~20).

12) C.B. Eavey, *op.cit.*, pp.50~52.

에게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들의 자손들도 **가르치게** 하겠다'"(신명 4,9~10).

이스라엘 백성 누구에게나 배우고 가르칠[13]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가 자자손손 이어지는 것임은 시편 78,1~6에도 나타난다.

"내 백성아, 나의 가르침을 들어라. 내 입이 하는 말에 너희 귀를 기울여라. […]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을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을. 우리가 그 자손들에게 숨기지 않고 미래의 세대에게 들려주려 한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권능을 그분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그분께서 야곱에 법을 정하시고 이스라엘에 가르침을 세우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것으로서 이를 그 자손들에게 알리려 하심이다. 미래의 세대, 장차 태어날 자손들이 알아듣고서 그들도 일어나 제 자손들에게 들려주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세우신 법과 가르침을[14] 미래의 세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다. 이러한 배움과 가르침의 사슬을 통해 이스라엘은 자자손손 하느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터였다.[15]

2.4. 교육자: 사제들, 예언자들, 현인들, 서기관들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교사'로서 특별히 내세워진 사람들이 따로 있었음도 보여준다. 사제들, 예언자들, 현자들, 서기관들이 그들이었다.[16]

---

13) 신명 4,10에서 '배우다' 및 '가르치다'로 옮긴 단어의 어원이 같다. '배우다'는 '*lmd*'의 칼(Qal)형(*lāmad*), '가르치다'는 피엘(Piel)형(*limmad*)이다(BDB).

14) 『성경』에 '법'이라 옮겨진 단어는 '*adût*, '가르침'이라 옮겨진 단어는 *tôrah*다. 각각 '증언' 및 '율법'이라 옮길 수도 있다. 특히 *tôrah*는 가르침, 율법, 모세오경을 모두 가리킬 수 있는 단어다(BDB).

15) Cf. C.B. Eavey, *op.cit.*, pp.51~52. 모든 백성에게 부여된 배움과 가르침의 의무가 처음 실현되는 장은 무엇보다 가정이다. 부모가 아들에게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것은 책임이자 의무가 된다. 이는 잠언 22,6에 나타나고 이 원리는 에페 6,1~4에 이어받는다.

16) 사제 예언자 현자들에 대해서는 Cf. J. Blenkinsopp, *Sage, Priest, Prophet: Intellectual*

사제는 하느님과 백성을 중개하는 자로서 하느님께 봉사하는 임무를 맡은 이들이다. 그들의 의무 가운데 하느님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포함된다(레위 10,11; 신명 31,11~12).[17] 가르침 의무가 사제의 으뜸 의무로 제시되기도 한다(신명 33,8~10).[18] 예레미야 예언자를 없앨 음모를 꾸미던 사람들이 "그자가 없어도 언제든지 사제에게서 가르침을, 현인에게서 조언을, 예언자에게서 말씀을 얻을 수 있다"고 한 말도 사제에게 가르침의 역할이 주어졌음을 방증한다(예레 18,18).[19]

예언자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로서 하느님의 사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핵심 역할은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율법을 가르치기도 한다. 스위프트(F. Swift)는 예언자들을 종교와 윤리 교사로 제시한다. 그들이 하느님이 누구이신가, 하느님의 뜻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등을 알려주고 가르쳤다는 것이다.[20] 이를테면 예언자 사무엘은 백성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좋고 바른 길을 가르"치기로[(yārah, 히필(hifil)형] 약속한다(1사무 12,23). 예언자들은 제자를 양성하기도 했으며(예: 엘리야와 엘리사) 하느님 메시지를 글로 남기기도 했는데, 그 기록들이 지금 구약성경 예언서들의 바탕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원로라 불리는 이들도 가르침을 맡았는데(신명 31, 9~13), 바빌론 유배 이후 이들의 역할이 커졌다고 한다.[21] 구약성경

---

and Religious Leadership in Ancient Israel, Louisville: Wesminster John Knox Press, 1995. 서기관에 대해서는 Cf. A.J., Saldarini, "Scribes," *ABD* 5, pp.1012~1016.

17) Cf. C.B. Eavey, *op.cit*., pp.54~56.

18) 레위를 두고 한 모세의 유언이다. "그는 당신의 법규들을 야곱에게 가르치고 당신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칩니다. 당신 앞에 향을 피워 올리고 당신 제단에서 번제물을 바칩니다." 가르침이 예배보다 앞서 제시된 점을 주목하라.

19) 이비는, 유배 이전까지 주로 사제들이 백성들의 교육을 담당했으리라고 한다: C.B. Eavey, *Ibid*., pp.55~56.

20) F.H. Swift, *Education in Ancient Israel from Earliest Times to 70 a.d.,* Chicago: The Open Court Publishing Co., 1919, p.38. C.B. Eavey, *Ibid*., p.59에서 재인용. 사실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 자체가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다.

21) C.B. Eavey, *Ibid*., pp p.56.

곳곳 특히 잠언에서는 '현인'들을 가르침과 결부시키고 있다.[22] 이를테면 "현인의 가르침은 생명의 샘이라 죽음의 올가미에서 벗어나게 한다"(잠언 13,14). 그러므로 "귀를 기울여 현인들의 말씀을 듣고 나의 지식에 마음을 쏟아라"고 한다(잠언 22,17). 코헬렛에서 현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슬기를 가르치고 연구한 이들로 소개된다. "코헬렛은 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백성에게 슬기를 가르쳤으며(*limmad*) 검토하고 연구하여 수많은 잠언들을 지어내었다"(코헬 12,9).

서기관(*sopēr*)들도 가르침에 종사했다. 본디 율법을 기록하고 필사하는 역할을 맡았던 서기관들이 유배 이후부터 점차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임무도 맡게 되었다. 남유다 왕국의 멸망이후 구전 및 성문 율법의 전수와 보존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서기관의 역할도 함께 커졌다고 한다. 그 대표적 예를 에즈라에게서 찾을 수 있다. 에즈라는 "사제이며 율법 학자(*sopēr* = 서기관)"(에즈 7,11), "율법에 능통한 학자"(에즈 7,6)로 소개된다. "에즈라는 주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규정과 법을 가르치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한다(에즈 7,10). 이 구절은 유배귀환자들을 이끈 백성의 지도자 에즈라가 율법 연구와 가르침에 전념했음을 드러낸다. 결국 서기관들이 율법 필사와 편집뿐 아니라 율법 연구와 가르침 및 해석의 임무도 맡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23] 가르침에는 공개 토론, 질문과 응답, 암기 및 모방 등의 방법을 두루 동원했다고 한다.[24] 서기관들도 예언자/사제/현인들처럼 율법과 하느님 역사의 해석자 역할을 하며 율법 학자라 불리기에 손색없도록 성장한 것이다.[25]

---

22) 이비는 현인들이 종종 '원로들'이라 불리기도 했다고 한다: C.B. Eavey, *Ibid*., p.56.

23) K. Gangel, "Biblical Theology of Leadership", *Christian Education Journal* 12(1991), 18. 서기관/율법 학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sopēr*로 같다. 이 단어는 칠십인역에서 γραμματεύς라 옮겨졌는데 이 번역전통이 신약성경에 그대로 이어졌다. 복음서에 나오는 '율법 학자'가 바로 γραμματεύς다. Cf. A.J., Saldarini, *op.cit*., p.1012.

24) J.O. Sayes, *op.cit*., pp.41~45.

25) B. Hayes, *op.cit*., p.34.

2.5. 소결론: 구약성경의 '교육'

구약성경은 종교 교육의 모판이라 할 수 있다. 구약성경 전체에 '가르침'과 '배움'이 스며있다. 특히 신명 31,9~13에는 교육의 목적과 내용 및 대상이 명시되어 있어 짚어볼 필요가 있다. 모세가 사제들과 원로들에게 7년에 한 번씩 백성들 앞에서 토라 전체를 낭독할 것을 명하면서 한 말이다.

"[…] 일곱 해마다, 곧 탕감의 해로 정해진 때마다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 너희 하느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분께서 선택하시는 곳으로 모여 올 때, 너희는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똑똑히 읽어야 한다. 너희는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를 가릴 것 없이 온 백성과 너희 성안에 있는 이방인까지 불러 모아, 그들이 듣고 **배워**(*lāmad*)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이 율법(*tôrah*)의 모든 말씀을 명심하여 실천하게 해야 한다. 13 또한 이것을 모르는 그들의 아들들도,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사는 동안에 언제나 듣고 **배워**,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게 해야 한다."(신명 31,9~13).

율법 낭독의 이유는 온 백성이 "듣고 배워" 율법(tôrah)의 모든 말씀을 실천하고 하느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라고 한다. 율법을 실천하고 하느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적인 셈이다. 교육 대상에는 모든 백성이 포함된다. 남녀노소 지위와 신분을 불문하며 심지어 (적어도 칠년에 한 번) 성안의 이방인들도 배제되지 않는다(신명 31,11~12).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듣고 배울' 의무가 있다고 한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 의무는 권리이기도 하다. 곧 남자 든 여자든 어린이든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느님의 율법을 듣고 배울 권리와 의무가 있었던 셈이다. 그리고 이 배움은 다음 세대의 가르침으로 이어져야 했다. 그리하여 모든 가정과 성전과 광장 등지에서 사적 가르침과 공적 가르침이 두루 행해졌다. 특히 유배 이후에는 이스라엘 각지에 회당이 세워져 백성의 율법 공부에 중추 역할을 담당했다.[26]

구약성경의 종교교육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모든 백성이 교

육의 수혜자이자 수여자였다는 사실과, 여러 직분의 사람들이 교육을 분담했다는 사실이다. 백성 전체가, 그리고 사제, 예언자, 현인, 서기관 들이 때와 상황과 가르침 내용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을 분담함으로써 조화로운 교육 체계를 이루었던 것이다(참조: [표 1]).

[표 1] 고대 유다교 교육 (R.W. Pazmiño, *op.cit.*, p.20)

	백성	예언자	사제	원로/현인	서기관 · 율법학자
목적	백성의 형성	하느님 뜻 전달	전승의 전달	삶의 길	성경의 해석
내용	역사	계명/윤리	율법/ 종교적 실천	슬기/지혜	신학적 해석
방법	기억/ 가정교육	말씀과 상징	토라의 전수/ 해석과 적용	금언/잠언	가르침
기관	가정 · 공동체	예언자 학교	성전	왕궁 등	회당

3. 신약성경

그리스도교 교육은 구약시대 유다인들의 종교 교육 전통을 잇고 있다.[27] 사실상 그리스도교 교육은 유다교 교육을 모델 삼아 이루어졌다.[28] 구약성경처럼 신약성경도 '가르침'과 '배움'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역설하는데 여기서도 가르침은 하느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리스도교 교육의 주체는 그리스도이신데(마르 3,13~15) 그리스도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르치신다고 한다(요한 15,15). 성령께서는 가르치시는 분이시자 가르침의 은사를 주시는 분으로 제시된다. 결국 성부·성자·성령께서 가르침의 궁극적

26) 유다교 회당의 기원과 발전, 특히 신약성경 시대까지 회당의 역사에 대해서는 Cf. L.I. Levine, *The Ancient Synagogue: The First Thousand Year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5, pp.21~173.

27) C.B. Eavey, *op.cit.*, p.76.

28) 이를테면, 유다인들이 성전과 회당과 가정에서 하느님의 율법을 배우듯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성전과 회당과 집에서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사도 2,41; 5,42). 사도들에 앞서 그리스도께서도 성전과 회당과 집에서 가르치셨다. 바오로 사도도 선교 여행 때마다 그곳의 회당이나 기도처를 먼저 찾았으며 때에 따라 '집'에서 가르침을 수행했다.

주체인 셈이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당신 추종자들에게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명하셨으며 그들은 그 명을 따랐다고 한다.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종의 방식으로 서로에게 스승 또는 교사가 된다. 곧 '가르침'은 모든 예수 추종자들, 곧 사도들이나 일부 지도자들 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정언명령이 된다. 이처럼 교육이 초대 교회 사목의 핵심요소 가운데 하나였음은 신약성경이 증언한다. 이제 신약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가르침'과 '배움'이 그려지는지 이비와 파쯔미뇨의 논의를 따라가며 살펴보겠다.[29]

3.1.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교 교육의 첫 선생이자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복음서 저자들은 줄곧 예수님을 스승으로 묘사한다. 예를 들어 요한 3,2에서 니코데모는 예수님을 하느님에게서 온 스승이라 일컫는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스승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총47번 스승(διδάσκαλος), 14번 라삐(마르 9,5; 요한 1,49) 또는 라뿌니(ραββουνι, 요한 20,16; 마르 10,51[30])라 불린다.[31] 라삐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요한 1,38). '선생'(καθηγητής)이라는 말도 그분을 가리켜 사용된다(마태 23,10). 총31번은 사람들이 그분께 직접 '스승님[διδάσκαλε (διδάσκαλος의 호격)]' 하고 부른 경우다. 그분의 추종자들이 '제자'(μαθηταί)라 불린 것도 그들의 '관계'를 반영한다.[32] 추종자들이 그분을 '스승'이라 부름으로써 그들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 관

29) C.B. Eavey, *op.cit*., pp.55~56; R.W. Pazmiño, *op.cit*., pp.34~45. Cf. M.J. Anthony/W.S. Benson, *op.cit*., pp.97~126.

30) 『성경』에서는 '스승님'이라 옮겨져 있다.

31) J.W. Garrett, "Didaskalos: The Teacher", *Tulsa Christian Fellowship*, 2. (https://www.tulsachristianfellowship.com/uploads/2/3/5/1/23513522/didaskalos_the_teacher.pdf)

32) 신약성경에서 '제자'(μαθητής)는 거의 예수님 추종자들을 가리키는 데 쓰인다(200회): K.H. Rengstorf, "μανθάνω", in *TDNT* Vol.4, G. Kittel(ed.), Grand Rapids: Eerdmans, 1975, p.441.

계임을 드러낸다. 그분께서 몸소 열둘을 부르시고 제자단을 형성하신 일(마르 3,13~19)은 특별히 중요하다. 이들은 스승과 제자,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의 특별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이다.

예수님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가 그분을 '스승님'이라 부른 경우도 있다. 가령 율법 교사나 바리사이들이 찾아와서 그분을 '스승님'이라 부르며 질문하는 경우들이다(마태 8,19; 12,38; 19,16; 22,16). 이 사례들은 타자들이 예수님을 '스승이라 불리는 분'으로 인식했음을 반영한다. 바리사이들이 그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리켜 "당신네 스승"이라 칭한 마태 9,11도 예수님과 추종자들의 관계가 타자들의 눈에 '스승과 제자' 관계로 보였음을 투영하고 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분이었음은 그분의 활동을 요약한 본문에서도 드러난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래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마태 4,23). 여기서 가르침이 가장 먼저 언급된 점을 주목하라. '가르침'과 '복음 선포'가 그분 활동의 핵심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마르 4,1~2; 6,2.6; 8,31; 9,31; 12,35).[33]

그분의 가르침을 듣는 것은 특정 제자단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제자들만(열두 제자, 또는 일흔 제자라 불리는 특정 집단) 따로 가르치신 적도(마태 13,36~53; 16,13~28; 요한 13) 있지만, 그들 외에도 다양한 범주 다양한 규모의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어부, 세리, 여인, 사마리아 여인, 바리사이를 가리지 않았으며, 백성(λαός, 루카 20,1)을 가르치신 적도, 군중(ὄχλος, 마르 4,1~2; 마태 5~7)을 가르치신 적도, 특정 개인을 가르치신 적도 있다(요한 3,4).

예수님께서 가르침에 특별히 많이 이용하신 곳은 회당과 성전이었다.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으로 그려진다(마르 1,21; 6,2; 루카 4,15; 6,6; 13,10; 요한 6,59). "예수님께

33) 사도 1,1에서 저자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직역)에 관해 첫 번째 책에서 다 다루었다고 한다.

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이다(마태 9,35; 참조: 13,54). 예루살렘 '성전'도 예수님께서 가르침 장소로 자주 이용하신 곳이다(마르 12,35; 14,49; 마태 21,23; 루카 19,47; 20,1; 21,37; 요한 7,14.28; 8,2.20). 예수님께서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다"고 하신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성전에서의 가르침이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 사건이었음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루카 19,47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한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요한 18,20). 그렇다고 그분께서 성전과 회당에서만 가르치신 것은 아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개인의 집에서도(루카 10, 38~42), 배에서도(루카 5,3), 산상에서도 이루어졌다(마태 5,1~2). 실제로 그분께서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가르치셨다고 한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마르 6,6)는 것이다. 사실상 그분께서는 사람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든 가르치셨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34] 이와 같은 스승 예수님의 전형적 모습은 산상 설교 도입부에 잘 묘사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마태 5,3~12). 마태 5,3 행복선언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태 7까지 길게 이어진다. 이때 산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들은 이들에는 제자들 말고도 다수의 군중들이 있었다. 그들의 반응을 전하는 구절에서도 예수님의 스승으로서의 면모가 드러난다. 군중은, 다른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34)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διδάσκειν)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 뭍에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διδάσκειν). 그렇게 가르치시면서(ἐν τῇ διδαχῇ αὐτοῦ) 말씀하셨다"(마르 4, 1~2).

가지고 가르치시는(διδάσκων) 그분의 가르침(διδαχή)에 몹시 놀랐다고 한다(마태 7,28~29).

물론 예수님에게 '스승'으로서의 면모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분께서는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기적을 행사했으며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모든 순간에 '스승'이심을 멈추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35]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의 반대자들도 이름 모를 군중도 그분을 '스승'으로 여겼다(마태 7,28~29). 여자들도 예수님을 스승이라 불렀으며,[36]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스승'임을 인정하셨다(요한 13,13).

3.2. 제자들 또는 사도들

예수님의 가르침은 대상과 장소를 불문하고 이루어졌지만 그분을 따르는 특별한 제자단이 따로 형성되어 있었다.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진 제자단의 형성은 그분의 뒤를 이어 그분 일을 이어나갈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하신 말씀에서 잘 드러난다.[37]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μαθητεύσατε),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διδάσκοντες)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19).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킨 것은 그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가르치라는'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이는 제자들이 스승께 받은 사명을 수행할 통로가 바로 이 '스승과 제자', '선생과 학생' 관계임을 암시한다.[38]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

35) C.B. Eavey, *op.cit.*, p.78.

36) 예를 들어 마르타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가리켜 "스승님"(διδάσκαλος)이라고 한다(요한 11,28). 그리고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라뿌니'(ραββουνι) 하고 부른다(요한 20,16).

37) 참조: 마르 16,15~18; 사도 1,6~8.

38)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은,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라는 마태 23,8~10과 일견 상치되는 듯하다: "너희는 스승(ῥαββί)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

라"는 말씀(마태 28,19)은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는 뜻을 함축한다. 샤를르 페로의 말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파견을 받은 제자이다. 제자는 스승의 뒤를 이어 또 제자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39]

스승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맺은 '스승과 제자' 관계가 제자들의 향후 활동의 표양이 될 것임은 요한 13,13~15에서 드러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이르신 말씀이다. "너희가 나를 '스승님(διδάσκαλος)'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ὑπόδειγμα)을 보여 준 것이다"(요한 13,13~15). 제자들은 스승에게서 배운 그대로 실행해야 할 임무를 받은 셈이다. 그들이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음은 사도 2,42에 반영되어 있다. 성령 강림 후 세례를 받은 첫 신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사도 2,42)고 한다. 사도들이 날마다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선포했다고 하는 사도 5,42도 마찬가지다.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이 집 저 집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메시아'시라는 복음을 선포하였다"(사도 5,42).[40] 사도

라. 너희의 스승님(διδάσκαλος)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 너희는 선생(καθηγητής)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καθηγητής)은 그리스도 한분뿐이시다"(마태 23,8~10). 그러나 이 말씀은 가르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이 말씀은, 모든 가르침의 원천은 하느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의 관계가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 평등한 형제 관계임을 강조한 것이다. 가르치는 이도 배우는 이도 모두 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다. 특히 καθηγητής(선생)이라고 불리지 말라는 말씀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단어는 '앞에서 가다, 이끌다, 인도하다'를 뜻하는 καθηγέομαι에서 나왔다(Thayer). 따라서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 가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며, 나머지 모든 사람은 그분 뒤에서 함께 가는 사람들임을 암시한다.

39) 샤를르 페로, 앞의 책, 60쪽.

40) 『성경』은 맨 마지막 문장(εὐαγγελιζόμενοι Ἰησοῦν τὸν χριστόν)을 '예수님은 메시아시라고 선포하였다'라 옮긴다. '선포하다'에 해당하는 는 여기서는 '기쁜 소식을 전하다' '복음을 선포하다'라는 εὐαγγελιζόμενοι의 본뜻을 살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복음을 선포하였다'라 옮겼다. 유다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백성을 가

들은 스승에게서 배운 대로 날마다 끊임없이 가르치며 복음을 선포했던 것이다.[41]

사도들 가운데 '가르침' 면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이는 단연 바오로 사도다. 바오로 사도는 생의 대부분을 '가르침'으로 보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를테면 바오로는 안티오키아에서 바르나바와 함께 "만 일 년 동안 그곳 교회 신자들을 만나며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다"고 한다(사도 11,26). 특히 사도 13,1은 바오로가 예언자 또는 교사로 여겨졌음을 드러낸다. 안티오키아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음을 전하면서 시메온 등과 함께 바르나바와 사울(=바오로)을 소개하는 구절이다. 여기서 '교사'라 옮긴 단어는 '스승' 예수님을 가리키던 단어와 같은 διδάσκαλος다. 또 바오로는 주로 회당에서 유다인들과 그리스인들을 가르쳤는데 '설교'와 '토론', '설득'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했다고 한다(사도 18). 이를테면 코린토에서 "바오로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다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려고 애썼다"(사도 18,4).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으며(18,8), 그 후 "바오로는 일 년 육 개월 동안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한다(18,11). 에페소에서는 회당 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학원(σχολή)에서도 토론을 이어나갔는데 이 활동은 두 해 동안 이어졌으며 유다인과 그리스인이 모두 바오로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사도 19,8~10).

이처럼 바오로 사도는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않고 가르쳤다. 이는 유다인들의 고발에서 잘 드러난다. "이자(바오로)는 어디에서건 누구에게나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성전을 거슬러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인들까지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

르치면서" 죽은 이들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을 불쾌히 여겼다고 하는 사도 4,2; 유다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 것을 지시한 사도 4,18.28도 참조하라.

41) 사도들의 활동 가운데 '가르침'과 '설교'가 그 어떤 활동보다 우선했다. 사실 설교(또는 선포 kerygma)와 가르침(didascalia)을 칼같이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가르침과 설교가 동시에 행해질 때도 있다. 사도 2,13~40에 나오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도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 바오로 사도의 경우도 설교와 가르침을 선 긋듯 분명히 구분할 수 없다. 대부분 설교와 가르침이 동시에 일어났다.

거룩한 곳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사도 21,28).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 활동은 마지막 활동지로 추정되는 로마에서도 이어졌는데 "그는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히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쳤다"고 한다(사도 28,31).

바오로의 끝없는 가르침 활동은 그의 이름으로 된 여러 서간들이 입증한다. 신자들이 사도로부터 "그분(예수님)에 관하여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증언(에페 4,21)처럼 바오로 사도가 가르침에 헌신한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바오로 사도는 '스승'이나 '제자'와 같은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바오로는 예수님을 스승이라 부르지도, 다른 사도들을 그분의 제자라고 부르지도 않았다. 자신에게서 배운 이들을 자신의 제자라고 특정하지도 않았다.[42] 페로는 그 이유를 바오로 사도가 자신의 직무를 선생으로서보다는 '말씀의 사도이자 봉사자'로서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한다.[43] '가르침'을 봉사자의 일로 인식했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그가 '스승과 제자' 관계를 전혀 맺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사목 서간(1/2 티모, 티토)에서 엿보이듯 바오로 사도는 스승 또는 교사로서 가르쳤다. 곧 "나는 이 증거의 선포자와 사도(κῆρυξ καὶ ἀπόστολος)로,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과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διδάσκαλος)로 임명을 받았습니다"(1티모 2,7). 바오로와 티모테오/티토의 스승과 제자 관계는 이들만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 스승과 제자 관계는 세대를 거듭하며 이어진다. 이는 2티모 2,2에 반영되어 있다.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또 그 사람이 다시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식이다. "많은 증인 앞에서 그대가 나에게서 들은 것을, 다른 이들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성실한 사람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예수님) → 바오로 → 티모테오 → 다른 사람 순으로, 가르침과 배움의 연쇄 반응은 세세대대로 이어진다.[44]

---

42) 사도 9,25에는 예외적으로 "(사울)의 제자들"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사목 서간에서 티모테오와 티토는 사도의 '아들'(τέκνον)로 표현된다(1티모 1,2; 2티모 1,2; 티토 1,4). 또한 사도는 오네시모스를 가리켜 '내가 낳은 아들'(직역)이라고 묘사한다(필레 10).

43) 샤를르 페로, 앞의 책, 60쪽, 97쪽.

3.3. 교육자들

가르침과 배움은 모든 신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었지만 교회 안에 '가르침' 활동에 헌신하는 이들이 따로 있었다.[45] 처음에는 가르침이 주로 사도들 중심으로 그리고 복음 선포(또는 설교)와 함께 이루어졌는데 교회 규모가 커지고 성장하면서 교사 역할을 전문적으로 맡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교회 안에 직무와 직능이 분화되는 과정과 맞물려 일어난 일이다.[46] 바오로 서간은 교회 안에 가르침을 전담한 '교사' 직능이 따로 있었음을 증언한다.[47] 가령, "하느님께서 교회 안에서 세우신 이들은, 첫째가 사도들(ἀπόστολοι)이고, 둘째가 예언자들(προφῆται)이며 셋째가 교사들(διδάσκαλοι)입니다. 그다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 도와주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

---

44) 디모테오에게 신자들을 가르치라고 독려하는 구절(1티모 6,2)도 마찬가지다. D. Burkett, *op.cit.*, p.439. 버킷은 이를 '사도적 계승'(apostolic succession)의 일환으로 해석한다.

45) 신약성경에 나타난 '교육자', 또는 '교사'에 대해서는, Cf. A. Falcetta, *Early Christian Teachers: The 'Didaskaloi' from Their Origins to the Middle of the Second Century*, Tübingen: Mohr Siebeck, 2020, pp.53~176.

46) 유다계 교회와 바오로계 (이방계) 교회의 직무와 직능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발전했다고 한다. 두 공동체가 사용한 직무의 기능과 칭호가 달랐으며, 이런 직무와 직능은 후대에 점진적으로 일치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참조: 샤를르 페로, 앞의 책, 19쪽; 30~31쪽. 페로에 따르면, 바오로 서간에 언급된 '사도들, 예언자들, 교사들'이라는 직능이 먼저 나타났고, '감독(에피스코포스), 봉사자(디아코노스), 원로(프레스뷔테로스)'라는 직분은 비교적 후대에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전자와 후자의 역할 사이에 분명한 관련성이 없다고 한다. 같은 책, 25~26쪽; 96~97쪽. "일시에 생겨난 것은 없다. 다양한 직무 형태가 개별 교회 역사의 시간과 장소에 밀착되어 있는 것이다": 같은 책, 29쪽.

47) 바오로 서간은 이방계 교회, 더 좁혀 바오로계 교회를 대변한다. 이방계 교회의 직제에 관해서는, D. Burkett, *op.cit.*, pp.297. 427~428; 샤를르 페로, 앞의 책, 194~238쪽. 유다계 공동체에도 '교사들'이 있었음은 히브 5,12에 암시되어 있다. "사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벌써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 『디다케』 11~13은 원로 대신 '감독'(에피스코포스)이라는 말을 쓰는데(15,1~2), 각 공동체가 예언자들과 '교사들' 외에 감독들과 봉사자들을 임명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유다계 교회의 직제에 관해서는, D. Burkett, *op.cit.*, p.385; 샤를르 페로, 앞의 책, 150~193쪽.

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1코린 12,28). 교회 지도자들의 직능은 여러 가지지만 앞의 세 직능이 가장 중요하다. 사도·예언자·교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친다는 점에서 같지만 직능 상 서로 구분되었던 것 같다. 이는 모두가 사도일 수 없고 모두가 예언자일 수 없으며 모두가 교사일 수 없다는 말(1코린 12,29)에 함축되어 있다.[48] 로마 12,5~8도 은사에 따라 예언자, 봉사자, 교사 등 다양한 직분으로 나뉘었음을 반영한다. 여기서 로마 12,7의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침에(ὁ διδάσκων ἐν τῇ διδασκαλίᾳ)"라는 표현이 교사 직분을 정확히 묘사한다. 말 그대로 교사는 가르침을 담당한 사람이라는 것이다.[49] 직능의 구분을 보여주는 에페 4,11도 '교사'를 언급한다.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εὐαγγελιστάς)로,[50] 어떤 이들은 목자나 교사(τοὺς ποιμένας καὶ διδασκάλους)로[51] 세워 주셨다"고 한다.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교회 안에 '교사' 직분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교사들 말고도 '가르침'의 의무를 부여받은 이들이 있었다. 바오로 친서보다 후대에 저술된 사도행전이나 사목 서간은 교회 '원로들'의 역할 안에 가르침과 설교를 포함시키고 있다.[52] 원로들의 의

48) A. Falcetta, *op.cit.*, pp.59~65. 이는 안티오키아 교회에 '예언자'와 '교사'가 있었음을 언급한 사도 13,1에도 암시되어 있다: *Ibid.*, pp.53~59. 팔체타(Falcetta)는 교회 안에 교사 직분이 처음 생겨난 곳이 안티오키아 교회였으리라 추정한다: *Ibid.*, p.58.

49) 로마 2,21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도 참조. 교회 (교사의) 가르침은 대개 '디다스칼리아'라 표현된다(로마 12,7; 1티모 4,6; 티토 1,9). 1코린 14,26에서는 같은 것이 '디다케'라 불린다(로마 16,17; 티토 1,9; 2요한 1,10). '디다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다(마태 7,28; 22,33; 마르 1,22.27; 4,2; 11,18; 요한 7,16; 18,19; 2요한 1,9).

50) 봉사자 필리포스(사도 21,8)와 티토(2티토 4,5)가 '복음 선포자'라 불린다.

51) 직역: '목자이자 교사.' '목자와 교사'가 하나의 정관사로 묶여 있다. 아마 하나의 직무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했을 법하다(https://biblehub.com/ephesians/4-11.htm).

52) 감독, 원로, 봉사자처럼 비교적 후대에 생겨난 직무들은 대개 바오로 친서들보다 늦은 시기에 쓰인(80~90년) 사도행전이나 사목 서간에 언급되어 있다. 실제로 사목 서간은 바오로 친서들에서보다 교회 직제가 더욱 분화된 형태를 보인다. 지역 교회 지도부는 대개 한명의 주교(감독)와 원로들로 구성된 것으로 그려진다. 그런데 티토 1,5~7에서는 감독과 원로를 병용하며 바오로의 교회에서(필리 1,1; 로마

무에 설교와 가르침이 포함되었음은 1티모 5,17; 티토 1,5~9에서 엿보인다. 이는 사도 20,7~38에도 반영되어 있다. 에페소의 교회 원로들과 작별인사를 나누던 바오로는 "유익한 것이면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회중 앞에서 또 개인 집에서 여러분에게 알려 주고 가르쳤"다고 하면서 원로들에게 양 떼를 돌보는 일을 계속해나가라고 당부한다. 성령께서 그들을 "양 떼의 감독"으로 세우시고 "하느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는 것이다. 유익한 모든 것을 원로들에게 가르쳐주었다는 바오로의 말은 원로들의 사목활동 가운데 '가르침'이 큰 비중을 차지했을 것임을 암시한다.[53]

3.4. 모든 그리스도인

신약성경은 사도들, 교사들, 원로들 등 가르침의 책임을 맡은 여러 직능의 사람들을 보여준다. 이는 교회 안에서 '가르침'이 특정인들만의 임무나 권리가 아니라 여러 직능이 나누어가진 일이었음을 암시한다. 그런데 이 시점에 간과해서는 안 될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가르침'이 사도들이나 원로들 또는 교사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가르침'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의무이자 권리로 여겨졌던 것 같다. 이는 콜로 3,16에 반영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이 구절은 가르침이 공동체 지도자들만의 일이 아니며,[54] 서로가 서로에게, 모든 이가 모든 이에게 교사가 되어주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는 거꾸로 모

16,1)처럼 지도부가 감독(또는 원로)과 봉사자들로 구성되었음을 암시한다. 1티모 3,1~13도 감독과 봉사자들을 언급한다. Cf. D. Burkett, *op.cit*., pp.437~439.

53) D. Burkett, *op.cit*., pp.437~439.『디다케』15,1~2에 따르면 감독들 외에 봉사자들에게도 가르침의 의무가 있었다.

54) 이는 모든 신자에게 '하느님의 사제단'이 되라고 한 2베드 2 말씀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여러분도 살아 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에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분의 위업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두가 모두에게서, 서로가 서로에게서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의미로 읽히기도 한다.

히브리서도 가르침과 배움이 상호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임을 암시한다. "사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벌써 교사(διδάσκαλος)가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느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를 다시 가르쳐줘야(διδάσκειν) 합니다(직역).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히브 5, 12~14). 이 구절은, 신앙인이 된지 오래라도 성숙해지지 않았다면 가르침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가르침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며 수혜자가 성숙해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수혜자가 수여자가 되어 다른 이를 가르쳐야 한다는 뜻도 담고 있다. 곧 그리스도교 교육은 상호성과 지속성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3.5. 그리스도교 교육의 목적

그리스도교 교육의 목적은 에페 4,11~16에서 잘 드러난다. 여기서 '가르침'의 목적은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이들은 목자나 교사로 세워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자라나 그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분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 그리하여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타난 '교육의 목적'은 한 마디로 '그리스도를 닮음', 또는 '그리스도와 같아짐'이라 요약할 수 있다. 사랑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경지에 다다르는 것,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것이 그리스

도교 교육의 궁극적 목표라는 것이다.[55] 교육의 목표가 '성장'임은 히브 6,1~3에도 반영되어 있다. 여기서 사도는 '기초'를 벗어나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자고 한다.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교리를 놓아두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 그 기초는 곧 죽음의 행실에서 돌아서는 회개와 하느님에 대한 믿음,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성숙한 경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교 교육은 '기초' 지식의 전달에서 끝나지 않으며 수혜자가 '성숙한 경지'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되는 일로 그려진다. 그리고 이 목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된다. 특정인만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이의 성장,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콜로 1,28에는 모든 이가 '함께 성장'한다는 교육의 목적이 간단히 요약되어 있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게 하려고, 우리는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타이르고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교 교육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일이라는 것이다.[56]

4. 신약 외경

가르침 및 배움과 관련해서 신약 외경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약 외경에 담긴 내용들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확언할 수 없지만 당대 교회 상황을 (적어도 일부) 반영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

---

55) 이어서 사도는, 헛되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면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을 줄 압니다." 하고 말한다(에페 4,20~21). 배운 대로, 그분에 관하여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아가라는 것, 그것이 가르침과 배움의 목표라는 의미다.

56) Cf. M.J. Anthony, "The Nature of Theology and Education", in *A Theology for Christian Education*, J.R. Estep/M.J. Anthony/G.R. Allison(eds.), 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2008, p.21.

은 결코 작지 않다. 실제로 외경은 신약성경에 나타난 교육의 중요성과 위상을 재확인시켜준다. 이를테면 여러 외경이 예수님과 사도들을 가르침을 행하는 스승으로서 묘사하고 가르침과 배움의 연쇄작용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됨을 보여준다. 외경은 신약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여기서는 교육과 관련하여 특별한 언급이 필요한 작품들을 골라 간단히 짚어 보겠다. 토마 복음, 사도들의 편지 그리고 외경 행전들이 이에 해당한다.[57]

4.1. 토마 복음

1세기 말~2세기 초에 만들어진 토마 복음서는 114개의 토막 말씀이 담긴 어록집으로, "살아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디디무스 유다 토마가 기록한 비밀 말씀들"이라는 머리말로 시작한다. 어록인 만큼 토마 복음은 그분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있어 그분의 '스승'으로서의 면모가 부각된다. 토마 복음의 예수님은 무엇보다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분이시다. 다음 말씀들은 여느 지혜의 스승이 했을 법한 가르침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네 형제를 네 영혼처럼 사랑하여라. 그를 네 눈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어라"(25).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어떤 의사도 자기를 아는 사람들은 치료하지 않는다"(31). "높은 산 위에 세운 견고한 도성은 쓰러질 수도 없고 감추어질 수도 없다"(32). "눈먼 이가 눈먼 이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34).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지 못하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지도 못한다. 그것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다. 선한 사람은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지만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고 악한 것을 말한다. 사실 그는 마음의 넘치는 것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45).

---

57) 여기서 소개하는 토마 복음과 사도들의 편지 본문은 『신약 외경 1』, 외경 행전 본문은 『신약 외경 하』에 실려 있다. 각 작품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두 책을 참조하라.

특히 지혜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진 말씀들은 예수님의 스승으로서의 면모를 돋보이게 한다. 가르침을 구하는 제자에게 스승이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식이다(말씀 6; 18; 20; 21; 24; 37; 43; 51; 53; 113). 이를테면, 제자들이 그분께 "할례는 유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물으면 그분께서 "할례가 유익했다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어미 뱃속에서부터 할례 된 상태로 낳았을 것이다. 그러나 더할 나위 없이 유익한 것은 영에서 이뤄지는 참된 할례다" 하고 답하신다(53). 토마 복음을 통해 신약성경 바깥에서도 스승으로서의 예수님이 여전히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에 대한 토마 복음의 시각은, 그분의 신원에 대한 제자들의 의견에서도 드러난다. 토마 13은 제자들의 입을 빌려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와 비슷한지 빗대어 말해보아라.'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은 의로운 천사와 비슷합니다.' 마태오가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은 현명한 철학자와 비슷합니다.' 토마가 그분께 말하였다. '스승님, 당신이 누구와 비슷한지 제 입으로는 도저히 말 못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스승이 아니다. 내가 직접 크기를 잰 샘에서 솟아오르는 물을 네가 이미 마시고 취했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토마를 데리고 물러나 그에게 세 가지 일을 일러 주셨다. […]"(말씀 13).

다소 난해한 이 말씀은 공관복음서에 병행구가 전해지는데(마태 16,13~20), "스승님은 […]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고백(16,16)은 그분의 신원을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춘다. 토마 13에서는 조금 다르게 진행되어, 베드로는 그분을 '의로운 천사'에, 마태오는 '현명한 철학자'(φιλόσοφος)에 견준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또는 현자를 가리키는 'φιλόσοφος'는 예수님을 지혜의 스승으로 여긴 전승을 반영한다. '스승이 누구와 비슷한지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없다'는 토마의 말에 이어진 "나는 너의 스승이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토마가 이미 스승을 대체할 정도로 스승과 비슷하게 성장했음을 암시한다. 웨이먼트(Wayment)는, 토마 13을 이상적 '제자' 상을

표현하는 말씀으로 간주한다. 가장 이상적인 제자는 '스승과 비슷한 스승이 된 사람'이라는 것이다.[58]

4.2. 사도들의 편지

2세기 중반에 저술된 '사도들의 편지'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뒤에도 그분이 여전히 제자들의 '스승'이심을 드러낸다. 우선 부활하신 분께서 '스승'이라 불리신다. 빈 무덤을 보고 슬피 우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울음을 그쳐라. 내가 바로 너희가 찾고 있는 사람이다. 너희 가운데 한 명을 형제들에게 보내어 '보십시오. 스승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어나셨습니다'라고 전하여라"(10). 그 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생전에 못 다하신 '가르침'을 베푸신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바닥에 엎드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일어나라. 내가 너희에게 하늘 위에 있는 것들과 하늘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하늘나라에 있는 너희의 안식처에 대해 알려주겠다"고 하시며 당신의 탄생과 부활, 마지막 심판 등에 대해 가르쳐주신다.

또한 사도들의 편지는 예수님에 이어 제자들도 '스승'이 될 것임을 선포한다. 저자는 예수님의 입을 빌려 제자들이 '아버지'와 '봉사자'와 '스승'이 될 것이라고 한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너희를 '아버지'라 부를 것이다. 너희가 그들에게 사랑과 보탬이 되려는 마음으로 하늘나라의 일들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를 '봉사자'라 부를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통하여 내 손에서 생명의 세례와 죄의 용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를 '스승'이라 부를 것이다. 너희가 그들에게 아무런 악의 없이 말씀을 전해 주었고 그들을 꾸짖기도 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들을 꾸짖었을 때 그들은

58) T.M. Wayment, "Christian Teachers in Matthew and Thomas: The Possibility of Becoming a 'Master'", *Journal of Early Christian Studies* 12(2004), 289.

다시 돌아왔다"(42).

여기서 '스승'은 하느님의 말씀과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 그리하여 회개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제시된다. 어떻든 이 작품은 예수님도 그분의 제자들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사도들의 편지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사항은, '올바른 가르침'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다. 저자는 '올바른 가르침'을 강변하면서 '다른 가르침'을 전파하는 이들을 경고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계명을 어긴 이들과, 기록된 것들 이외의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들 자신의 말을 덧붙이며, 나를 올바르게 믿는 이들의 말과 다른 말로 가르치는 이들은, 그들이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파멸시킨다면 영원한 징벌을 받을 것이다"(29). 이는 신약성경에서 바오로 사도가 그릇된 가르침에 맞서 '건전한 가르침'을 역설한 사실과 일맥상통한다(1티모 6,3.20; 2티모 1,14 등). '올바른 가르침'에 대한 식별의 중요성이 초대 교회의 주요 이슈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4.3. 외경 행전들

외경 행전들은 사도들의 삶이 가르침과 설교로 점철했음을 보여준다(테클라 행전 9; 안드레아 행전 13; 토마 행전 16; 104[59]). 이를테면 수많은 형제들이 "(토마사도가) 인도의 여러 도시에서 교리를 설파하고 거기서 가르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 식이다(토마 행전 16).

외경 행전들은 사도들과 신자들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음도 확인시켜 준다.[60] 이는 특히 2세기 중

59) "(토마 사도가) 가르치는 것은 이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한 분이신 하느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 그리고 그는 하느님은 거룩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며 그리스도는 생명이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함과 정결과 사랑과 믿음 안에 그분께 다가가라고 권고합니다."

60) 토마 행전 87에서 어떤 부인은 토마 사도를 "살아계신 하느님의 제자"라 칭하면서 하느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청한다. 제자인 사도가 스승이 되는 순간이다.

반의 바오로와 테클라 행전에서 잘 드러난다. 여기서 바오로와 테클라의 관계는 신약성경의 바오로와 티모테오나 티토의 관계와 비슷하게 묘사된다. 테클라는 바오로에게서 복음을 접한 뒤 점차 독자적인 말씀의 전령으로 성장하여 자신이 하느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 이 이야기는 가르침을 받던 신자 그것도 여성이, 가르침을 주는 이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이코니온의 젊은 여인 테클라는 옆집에서 바오로 사도가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가르침에 매료된다(7). 그 당시 이코니온 시민 전체가 바오로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다고 한다(9). 이를 질투한 사람들의 고발로 바오로 사도가 총독 앞에 나서서 한 말은 그의 활동이 '가르침'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드러낸다. "제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오늘 심문받아야 한다면, 들으십시오. […] 하느님께서 사람들의 구원을 바라시어 저를 보내셨습니다. […] 저는 (하느님 아들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분께 희망을 두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 제가 하느님께서 저에게 계시해 주신 것들을 가르친다한들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총독님?"(17). 결국 바오로는 도시 밖으로 내쫓기고 약혼자와의 혼인을 거부한 테클라는 화형장에 내몰리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는다(21~22). 테클라는 바오로 사도에게 세례를 청하지만 때를 기다리라는 답을 듣는다(25). 다시 야수형을 선고받고 경기장에 들어섰을 때 테클라는 '이제 제가 세례 받을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지막 날에 세례를 받습니다' 하고 말하고는 웅덩이에 몸을 던져 스스로 세례를 거행한다(34). 이번에도 기적적으로 살아난 테클라는 다시 바오로를 찾아가 스스로 세례를 거행한 사실을 알리고 바오로는 이 세례를 승인한다. 그리고 테클라는 바오로에게 이코니온으로 돌아갈 뜻을 표한다. 그러자 바오로는 "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오" 하고 말한다. 결국 테클라는 바오로를 떠나 이코니온으로 가서 하느님 말씀을 가르친다(41~42). 테클라는 나중에 셀레우키아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비춘 다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한다(43).

사도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테클라가 '가르치는 자'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작품은, 신약성경에서 엿보이던 가르침과 배움, 스승과 제자의 연쇄반응을 재확인시켜준다. 특히 평신도 여성을 하느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로 묘사함으로써 2세기 중반에도 '가르침'에는 남녀가 따로 없고 성직자 평신도가 따로 없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심지어 외경인 마리아 복음은 마리아 막달레나를, 다른 사도들을 가르치는 모습으로 묘사한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주님한테서 다른 사도들은 듣지 못한 비밀 가르침을 받아 그것을 다른 사도들에게 가르치는 식이다(10).[61]

다른 행전들에서도 테클라 행전과 비슷한 식의 전개가 이루어진다. 안드레아 행전에서는 사도가 '소크라테스'와 같은 '산파' 역할을 하며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가령, "스트라토클레스는 밤낮으로 사도와 함께 머물면서 그를 떠나지 않고, 한편으로는 질문하고 배우고 쉬며, 다른 한편으로는 침묵 속에 기뻐하면서 구원의 가르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 다른 사람 앞에서는 복되신 사도에게 더 질문하지 않고, 나머지 형제들이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따로 그분한테서 배웠다." 사도가 잠도 자지 못하게 하면서까지 질문과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8). 안드레아 사도는 스타라토클레스에게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라고 명한다. 진통을 겪는 여인이 해산하여 아이를 내놓듯이 "내 아들 스트라토클래스여, 우리도 당신의 태아(=가르침)를 사람들 가운데 데려다 놓아야 하며 숨겨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아기가 더 많은 동족들에게 알려지고, 또 그대가 동참하는 구원 말씀의 전파로 인도될 것입니다"(9). 여기서 가르침의 연쇄반응이 재확인된다. 안드레아 사도는 막시밀라라는 여인의 '스승'으로 소개되기도 한다(27). 안드레아 행전 42~50에는 사도의 가르침이 제자와의 대화 형식으로 전해지며, 55~58에는 사도의 마지막 가르침이 담겨 있다. 이 또한 사도들의 활동 가운데 '가르침'과 설교가 핵심적

61) 마리아 복음 본문은 송혜경, 『영지주의자들의 성서』에 실려 있다. 1티모 2,12는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반대하지만 이 구절 자체가 그 반대, 곧 교회에서 가르치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반증이 된다.

위치를 차지했음을 드러낸다.

베드로 행전은 '배움'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죽음을 앞두고 행한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연설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배울 때 그분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것들을 얻게 된다고 선포한다. "형제 여러분, 오직 그분께만 피신하면서 여러분이 그분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배울 때,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눈이 본 적이 없고, 귀가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들입니다"(10).

5. 결론

그리스도교 교육은 구약성경과 유다교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유다교 종교 교육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구약성경은 유다교가 '가르침'과 '배움'의 종교임을 드러낸다. 구약성경에는 가르침의 의무가 부여된 사람들 가령, 모세, 사제와 원로들과 현인들, 예언자들, 서기관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의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된다. 가르침과 배움은 모든 백성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것이다. 신약성경에서도 가르침과 배움은 그리스도교 삶의 중심부에 자리하며 모든 그리스도인의 권리이자 의무로 제시된다. 우선 예수님과 그 추종자들이 스승과 제자 관계로 그려진다.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서 따르며 배웠다는 뜻이다. 그들이 예수님의 신원과 사명을 깨닫는 것은 바로 이 '스승과 제자' 관계를 통해서였다. 이 관계를 통해 그들은 새로운 스승으로서 자라날 터였다. 그리고 이런 스승과 제자 관계는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까지 세대를 거듭하며 계속 이어질 터였다.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권리와 의무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이는 신약 외경에서도 확인된다.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를 통해 모든 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모든 이가 누군가에게 스승이 된다. 배우는 사람은 혼자만의 배움에 그치지 않았다. 그리스도인의 배움에는 자기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

어야 할 의무가 내포되어 있었다.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서로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스승이자 제자가 된다. 스승과 제자 관계는 같은 세대의 수평적 차원과 세대 간 수직적 차원 모두에서 이루어졌다.[62]

초대 그리스도교 안에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믿음'을 중시한 바오로 사도가 '지식'(γνῶσις)을 강조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필리 3,8). 사실 믿음과 지식, 앎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둘을 떼어놓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적어도 그리스도교 삶에서 믿음 없는 앎도, 앎 없는 믿음도 없다. 앎과 믿음은 함께 가는 것이다. 실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지식은 믿음이나 실천과 분리된, 그저 '지식을 위한 지식'이 아니다. 믿음과 실천으로 이어지는 지식이며 그 역도 성립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식(γνῶσις)은 영지주의자들만의 것이 아니다. 지식은 믿음 및 실천과 함께 그리스도교 삶의 근본바탕을 이룬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이 세 가지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으며 예외가 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지식'으로 인도하는 가르침과 배움은 성직자 평신도 구분 없이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권리가 된다. 이런 점에서 신학대학이 평신도에게 개방된 일은 초대 교회의 삶으로 돌아간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시노달리타스가 강조되는 시대, 시노달리타스의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시대다. 그런데 성경과 외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알

62) 교육의 중요성은 사도 교부들 문헌에서도 잘 나타난다. 『디다케』 1,1-7,1에는 세례를 받기 원하는 예비신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 내용이 담겨 있다. 『디다케』에 나타난 '교육 개념'에 대해서는 Cf. A. Falcetta, *Ibid*., pp.125~135; 이냐시우스의 『편지들』은 *Ibid*., pp.176~178; 폴리카르푸스의 『편지와 순교록』은 *Ibid*., pp.198~210, 헤르마스의 『목자』는, *Ibid*., pp.213~233; 바르나바의 『편지』는 *Ibi*d., pp.246~254. 3세기 초에 저술된 차명-히폴리투스의 『사도 전승』은 예비자들이 3년 동안의 교육을 거쳐야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로마 교회에만 적용된 규칙인지 다른 교회들에도 두루 적용된 규칙인지 정확하지는 않다. 교육 기간에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예비자들의 교육 — 지식적인 면이든 윤리적인 면이든 — 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세례가 거행된 것은 모든 지역 교회의 공통된 사항이었을 법하다.

려주는 것은, 종교 '교육' 자체가 시노달리타스 정신으로 행해졌다는 사실이다. 우선 구약성경에서 교육이 모든 백성, 사제, 예언자, 현인, 서기관들의 협력과 협치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정 계층만 가르침과 배움을 독점하지 않았던 것이다. 신약성경과 외경에서도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르침과 배움을 실천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도들, 원로들, 교사들 등 가르침에 헌신한 사람들이 따로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가르침을 전담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의 경지까지 계속 성장할 의무와 가르침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성장시킬 의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었다. 가르침이나 배움이 특정인들만의 것으로 한정되는 법이 없었던 것이다. '올바른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제도적으로 직무와 직능이 분화되고 교육이 교회의 감독 하에 이루어졌지만[63] 그렇다고 가르침과 배움이 특정인들의 전유물이 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모두가 모두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과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각자 그리고 함께' 계속 성장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 이처럼 모두가 함께 성장한다는 목표를 지닌 초대 그리스도교 교육은 시노달리타스의 결정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초대 그리스도교에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일찍부터 교리 학교들이 세워진 데서도 알 수 있다. 그 첫 주자는 2세기 말에 세워진 알렉산드리아 교리학교(διδασκαλεῖον)였다.[64] 성경 주석 및 그리스도교 신학과 철학의 산실이 되었던 이 학교와 관련하여

63) '올바른 가르침'에 대한 식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문제는 초대 교회의 주요 화두이기도 했다. 교회는 늘 거짓 가르침, 사이비 가르침, 다른 가르침을 경계했다. 이는 성경과 외경, 교부들이 공통적으로 역설하는 사항이다(2요한 7~11; 『디다케』 11,2). 가르침에는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 기준은 반드시 지켜져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감독할 역할은 매우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하다. Cf. D. Burkett, *Ibid*., pp.441~442.

64) 알렉산드리아 교리 학교에 대해서는, R. Van den Broek, "The Christian 'school' of Alexandria in the second and third centuries", in *Centres of learning: Learning and location in pre-modern Europe and the Near East*, J.W. Drijvers/A.A. MacDonald(eds.), Leiden: Brill, 1995, pp.39~47.

주목할 사실은 초창기 교장들이 대개 평신도였다는 것, 그리고 남자 뿐 아니라 여자도 학생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다. 적어도 초대 교회는 가르침과 배움에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았던 것이다.[65]

2000년 전과 여러 면에서 달라진 지금, 그리스도교 교육에 대해 초대 교회를 그대로 모방하자고 할 수는 없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디테일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육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한 경지로 성장하자는,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자는 교육의 목표만큼은 변함없이 계승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목표에는 성직자와 평신도,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시편의 다음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한다.[66]

"행복하여라, […] 주님의 가르침(*tôrah*)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tôrah*)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시편 1,1~2).

---

65) R. Van den Broek, *Studies in Gnosticism and Alexandrian Christianity*, Leiden: Brill, 1996, pp.200~201. 팔체타는 디다케에 언급된 교사들에(13,2; 15,1~2) 여성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제안한다: A. Falcetta, *op.cit.*, pp.134~135. 가령 "아이야"(τέκνον)로 시작하는 3,1~6에서 가르침의 수신인을 중성인 τέκνον을 쓴 사실을 지목하면서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대개 다른 여성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음을 강변한다. 교회 안에서도 여성 예비자는 여성 교사가 가르쳤을 법하다는 것이다. 여성인 유니아가 사도라 불린 점(로마 16,7), 프리스킬라가 남편과 함께 아폴로에게 '하느님의 길'을 설명해 준 점 등을 감안하면 여성 교사가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66) 참조: "행복하여라, 그 길이 온전한 이들, 주님의 가르침(*tôrah*)을 따라 걷는 이들! […] 제 눈을 열어주소서. 당신 가르침(*tôrah*)의 기적들을 제가 바라보오리다"(시편 119,1.18).

[참고 문헌]

1. 성경 및 사전

『성경』,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Aland, B. et al.(eds.), *Novum Testamentum Graece* 28th rev.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2.

Elliger, K./Rudolph, W.(eds.),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Stuttgart: German Bible Society, 2006.

Bauer, W./Danker, F.W.,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r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Brown, F./Driver, S.R./Briggs, C.A., The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Peabody: Hendrickson, 1994.

Liddell, H.G., Scott, R., *Greek English Lexicon*, 9th ed. with a revised supplement, Oxford: Clarendon Press, 1996.

Thayer, J., Thayer's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Peabody: Hendrickson, 1995.

2. 일반 문헌

Anthony, M.J., "The Nature of Theology and Education", in *A Theology for Christian Education*, J.R. Estep/M.J. Anthony/G.R. Allison(eds.), 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2008, pp.5~24.

Anthony, M.J./Benson, W.S., *Exploring the History and Philosophy of Christian Education: Principles for the 21st Century*, Wipf and Stock Publishers, 2011.

Blenkinsopp, J., *Sage, Priest, Prophet: Intellectual and Religious Leadership in Ancient Israel*, Louisville: Wesminster John Knox Press, 1995.

Burkett, D.,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and the Origins of Christian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Eavey, C.B.,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Chicago: Moody Publishers, 1964.

Falcetta, A., *Early Christian Teachers: The 'Didaskaloi' from Their Origins to the Middle of the Second Century*, Tübingen: Mohr Siebeck, 2020.

Gangel, K., "Biblical theology of leadership", *Christian Education Journal* 12(1991), 13~31.

Garrett, J.W., “Didaskalos: The Teacher”, *Tulsa Christian Fellowship*, 2. (https://www.tulsachristianfellowship.com/uploads/2/3/5/1/23513522/didaskalos_the_teacher.pdf)

Hayes, B., *Training God's Army: The American Bible School*,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1991.

Levine, L.I., *The Ancient Synagogue: The First Thousand Year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5.

Pazmiño, R.W., *Foundational Issues in Christian Education: An Introduction in Evangelical Perspective*,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8.

Rengstorf, K.H., “$\mu\alpha\nu\theta\acute{\alpha}\nu\omega$”, in *TDNT* Vol.4, G. Kittel(ed.), Grand Rapids: Eerdmans, 1975, pp.390~461.

Saldarini, A.J., “Scribes,” *ABD* 5, pp.1012~1016.

Sayes, J.O., *Renewal in Theological Education: Strategies for Change*, Wheaton: The Billy Graham Center, 1978.

Swift, F.H., *Education in Ancient Israel from Earliest Times to 70 a.d.*, Chicago: The Open Court Publishing Co., 1919.

Van den Broek, R., “The Christian ‘school’ of Alexandria in the second and third centuries”, in *Centres of learning: Learning and location in pre-modern Europe and the Near East*, J.W. Drijvers/A.A. MacDonald(eds.), Leiden: Brill, 1995, pp.39~47.

Van den Broek, R., *Studies in Gnosticism and Alexandrian Christianity*, Leiden: Brill, 1996.

Wayment, T.A., “Christian Teachers in Matthew and Thomas: The Possibility of Becoming a ‘Master’,” Journal of Early Christian Studies 12 (2004), 289~311.

샤를르 페로,『예수 이후ㅡ초대 교회의 직무』, 백운철 옮김, 가톨릭출판사, 2002.

송혜경,『신약 외경 1』, 한님성서연구소, 2021.

『신약 외경 하』, 한님성서연구소, 2011.

『영지주의자들의 성서』 개정판 한님성서연구소, 2022.

https://biblehub.com/ephesians/4-11.htm.

국문초록

본 논문은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교 교육에 대해 알아본다. ‘평신도 교육’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리스도인 교육’이라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그리고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양 측면에서 접근한다. 성경과 외경을 주 자료로 삼아 각 본문들이 가르침과 배움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살펴본다. 논의는 구약성경, 신약성경, 신약 외경 순으로 전개하되 방점은 신약성경에 둔다. 구약성경은 그리스도교 교육의 기원을 살피는 의미에서, 신약 외경은 신약성경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핵심만 짚는다.

그리스도교 교육은 구약시대 유다인들의 종교 교육 전통을 잇고 있다. 유다교가 ‘가르침’과 ‘배움’의 종교임을 드러내는 구약성경은, 하느님으로부터 출발한 ‘가르침’이 모세와 다른 지도자들을 거쳐 백성 전체에게, 그리고 백성 전체를 통하여 자자손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사실상 가르침과 배움의 의무와 권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져 있었다. 신약성경에서도 가르침과 배움은 그리스도교 삶의 중심부에 자리하며 모든 그리스도인의 것으로 그려진다. 우선 예수님과 그 추종자들이 스승과 제자 관계로 그려진다. 추종자들이 예수님의 신원과 사명을 깨닫는 것은 바로 이 ‘스승과 제자’ 관계를 통해서였다. 또 그들은 이 관계를 통해 새로운 스승으로서 자라났다. 그리고 이러한 스승과 제자 관계는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까지 세대를 거듭하며 계속 이어질 터였다.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권리와 의무에서 배제되지 않았다. 이는 신약 외경에서도 확인된다.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를 통해 모든 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모든 이가 다른 누군가에게 스승이 된다. 배우는 사람은 혼자만의 배움에 그치지 않았으며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교회 공동체 전체에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모든 이가 스승

이자 제자가 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종교 '교육'이 시노달리타스 정신으로 행해졌다는 사실이다. 우선 구약성경에서 교육이 모든 백성, 사제, 예언자, 현인, 서기관들의 협력과 협치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약성경과 외경에서도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르침과 배움을 실천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도들, 원로들, 교사들 등 가르침에 헌신한 사람들이 따로 생겨났지만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의 경지까지 계속 성장할 의무와 가르침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성장시킬 의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었다. 가르침이나 배움이 특정인들만의 것으로 한정되는 법이 없었던 것이다. 모두가 모두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과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각자 그리고 함께 계속 성장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었다. 이처럼 모두가 함께 성장한다는 목표를 지닌 초대 그리스도교 교육은 시노달리타스의 결정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2000년 전과 여러 면에서 달라진 지금, 그리스도교 교육에 대해 초대 교회를 그대로 모방하자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육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한 경지로 성장하자는,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자는 목표만큼은 변함없이 계승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목표에는 성직자와 평신도,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 주제어: 초대 그리스도교 교육, 성경과 외경, 스승과 제자, 시노달리타스, 함께 성장